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숏폼 콘텐츠 분류 표시 규범화 전면 추진

일부 숏폼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하고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의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올해 들어 숏폼 콘텐츠 분류 표시(标注) 규범화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왔다. 1월부터 각 플랫폼을 지도하여 연출·제작된 위반 영상 등 52만여개를 정리 삭제하고 위반 계정 6만 8,000여개를 엄격히 처벌했으며 54기의 관리 공고를 발표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개했다. 3월에는 틱톡(抖音), 콰이서우(快手), 텐센트(腾讯), 소홍수(小红书), 필리필리(哔哩哔哩), 웨이보(微博), 토보(淘宝), 징둥(京东), 핀뉘이(拼多多), 알리페이(支付宝), 메이탄(美团), 바이두(百度) 등 12개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지도하여 콘텐츠 분류 표시 태그를 개선하고 콘텐츠 분류 표시 기능을 최적화 및 테스트했다.

최근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12개 플랫폼의 시범 운영 경험을 종합하여 각 지역과 각 플랫폼이 다음 세가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했다. 첫째, 숏폼 콘텐츠 분류 표시 태그를 규범화하여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반드시 '6가지 필수 선택 표시'를 제공하고 플랫폼 자체 상황에 따라 기타 '선택 표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 선택 표시'에는 '허구적 연출·제작 내용 함유', 'AI 생성 콘텐츠 함유', '마케팅 정보 함유',

'전재(转载) 내용', '개인 의견 내용', '분류 표시 불필요'가 포함된다. 실제 생활 기록류의 숏폼은 '분류 표시 불필요' 표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표시는 숏폼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는다. 둘째, 콘텐츠 분류 표시를 숏폼 게시의 필수 단계로 설정하여 발표자가 반드시 '필수 선택 표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새로 추가되는 숏폼의 분류 표시 상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영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분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보완 수정하고 관련 발표자에게는 교육 및 경고를 실시하여 숏폼 콘텐츠가 모두 분류 표시되도록 추진했다.

숏폼 콘텐츠 분류 표시 규범화는 숏폼 콘텐츠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장기적인 사업이다. 다음 단계에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플랫폼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독·점검을 강화하고 요구에 따라 분류 표시를 하지 않은 계정과 주체책임자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공개적으로 폭로할 예정이다. 따라서 각 플랫폼, 숏폼 발표자 및 사용자는 분류 표시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건강하고 질서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숏폼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한다.

/법치일보

성공안청, '5.15' 경제범죄 타격 및 예방 선전의 날 행사 개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 항상 갖고 있어야



경찰이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자료를 나눠주며 안전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5월 15일, '제 17회 전국 공안기관 경제범죄 타격 및 예방 선전의 날'을 맞아 길림성공안청과 장춘시공안국은 길림성증권감독관리국, 길림성당위 금융판공실, 길림성지방금융관리국, 중국인민은행길림성지점 등 20개 상업금융기구와 함께 '시민과 한마음, 당신을 지켜드립니다(与民同心为您服务)' 주제의 선전 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9시경, 장춘시 조양구 목단원은 뜻을 감상하는 인파가 끊이지 않았다. 경찰들이 동쪽 광장에 선전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설명 부스를 마련하자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경찰들은 전단지 나눠주며 불법 모금, 다단계(传销) 사기 등 주요 경제범죄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범행 수법에 대해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다.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시민들

은 적극적으로 예방법을 배우고 질문도 쏟아냈다. 휴대전화로 전단지를 찍어 지인에게 보내는 일부 시민들의 모습도 목격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선전의 날'을 계기로 길림성공안청은 전 성 각급 공안부서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고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선전 행사를 조직했다. 행사를 통해 경

찰들은 시민들에게 예방 지식을 직접 전달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대응 능력을 가일층 높여주었으며 이로부터 경제범죄 예방과 단속에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해, 전 성 공안경제범죄수사부문의 성당위와 성정부, 성공안청의 결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주어진 임무에 집중하며 발전에 힘을 보탰다. 또한 경제 분야 공공안전 위험 방지 및 해소, 전 성 금융관리 질서 및 세수징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적극적인 공세와 예방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 재테크(投资理财)', '자산관리', '실버관광'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모금 범죄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사건 발생 건수를 대폭 감소시켰다. 또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계약 사기, 불법 영업, 직무상 횡령(职务侵占) 등 기업 관련 범죄를 정밀하게 단속하여 경영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했다.

장춘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종합관리대대 법제중대 부중대장 진원은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생소한 투자는 피하시고 알지 못하는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또한 낯선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행복한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김명준기자



고속도로 야간 추돌사고 다발 공안부 제시 발표

최근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잇달아 발생한 고속도로 야간 다수 사상(死伤) 사고와 관련, 운전자들에게 야간 고속도로 운전 시 정신을 집중하고 신중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5월 7일 0시 5분경, 한대의 대형 세미트레일러(半挂车)가 북경-할빈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 대형 세미트레일러가 하북성 진화도시 부근에 이르렀을 때 금방 비상차선에 들어서서 서쪽으로 주행하던 소형 승용차와 추돌하며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월 7일 0시 25분경, 한 소형차가 대형(大庆)—광주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주행, 북경 대흥 영정화대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앞에서 줄지어 대기중이던 대형 세미트레일러와 추돌하여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월 8일 21시 33분경, 한대의 대형 세미트레일러가 오하(五河)—박주(亳州) 고속도로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주행하던 중 안휘성 박주시 초성구(谯城区) 부근에 이

르러 전화통화를 위해 주행차로에 정차해있던 소형 승용차와 추돌하며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야간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지며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고속도로에서 야간 주행할 때는 정력을 집중하고 전후방 차량을 항상 주의하며 '속도 조절, 안전거리 유지, 합리한 전조등 사용, 신중한 차선 변경'을 실천하고 피로운전, 산만운전, 서속운전을 피해야 한다.

갈림길, 휴게소 및 응급차선, 비상정차선에서 고속도로 차로로 진입할 때는 미리 백미러(后视镜)를 살펴보고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주행 차선의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어 진입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미리 오른쪽 차선에 들어서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빠져나가야 한다. 만약 출구를 놓쳤다면 다음 출구까지 계속 이동하여 안전하게 돌아와야 하며 급정거, 후진 또는 역주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영상회의 속 기밀 유출 위험과 예방법

영상회의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편리하면서 점차 업무 교류와 정보 전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간혹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회의 참가 허가 불엄격 일부 기관은 인터넷 영상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 전용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회의 ID나 회의 링크를 단순히 업무그룹에 전달할 뿐 지정된 인원에게만 전달하거나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다. 무분별하게 퍼뜨려진 회의 링크는 마치 열린 문과 같아서 관계없는 사람들이 쉽게 회의에 침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무분별한 조치가 화를 초래 일부 회의 관계자들은 보안 의식이

부족하여 중요한 회의에서 화면을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고 사진을 찍는 등 행위를 감행한다. 또한 화면 공유 시 팝업창(弹窗)을 닫지 않거나 바탕화면을 정리하지 않으며 공개하기 부적절한 회의 내용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전송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이 불법분자들로 하여금 회의 정보를 주시하고 흠어진 정보를 조합하여 완전한 정보를 만들어내 기밀을 유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회의 개최는 금물 일부 기관은 기밀 회의를 진행할 때 보안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편의를 위해 보안 자격이 없는 영상회의 플랫폼을 위반 사용하기도 한다. 불법분자들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회의 내용, 공유 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빼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기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보보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영상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문과 관계자들은 전체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 보안을 지켜야 한다.

참가 허가 권한 엄격히 통제: 회의장에 '전자 출입 통제' 설치 내부 영상회의 개최전에 독립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실명 인증을 실시하며 회의 링크와 비밀번호를 대량 발송하거나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영상회의가 시작된 후 즉시 진입 경로를 막아 외부인의 참여를 차단해야 한다. 회의 종료후에는 회의 링크를 즉시 폐기하고 회의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조작 규범 엄격히 준수: 행동에 안전 수칙 설정 해당 회의 주최자와 참석자는 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녹화, 파일 전송, 화면 공유 등의 기능을 잡고 불필요한 제3차 플러그인(插件)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민감한 회의 내용이 유출되는 상황

을 방지해야 한다.

회의 시스템 엄격히 선정: 기밀 회의는 '전용 시스템으로 별도 개최' 기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국산, 합법, 규격 부합,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용 회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시설 장비에 대한 보안 점검과 테스트를 실시하고 인터넷이나 기타 공공정보 네트워크에서 기밀 회의를 개최하거나 국가 기밀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전기관은 "편리 때문에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효율 때문에 보안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기밀 회의와 비기밀 회의, 내부 회의와 공개회의를 구분하여 규정에 따라 보안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 회의 시스템을 선택하고 필요한 회의 보안 방호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치일보

법원, AI 도입 대신 직원 해고한 회사에 '불법 해고' 판결

질감성향주시중급인민법원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35세의 주씨는 한 금융과학기술기업에서 AI 대형 모델 품질 검사 팀장으로 일해왔다. 그의 역할은 AI와 사용자간의 대화에서 생성된 응답의 정확성과 품질을 검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5년 1월, 회사는 그를 팀장직에서 일반 운영 직책으로 발령내고 월급도 기존 2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주씨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되자 회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곧바로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씨가 노동중재를 신청한 뒤에는 회사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그의 업무를 AI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리유

를 밝혔다. 노동중재부터 1심, 2심 재판까지 법원은 모두 주씨의 소송 요구를 지지했다. 법원은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주씨에게 2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회사가 단순히 AI 효율성을 내세워 노동자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계약 리행이 불가능한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I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노동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동사법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장민은 "기업이 AI 도입을 명분으로 직무 조정과 급여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

렵다."고 설명했다.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아나운서 백압송은 자신의 프로에서 이번 판결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혁명 속에서 AI는 문서 작성, 설계, 코딩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AI를 도입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사회문제로 확장될 때는 이 야기가 다르다. 효율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때로는 노동자의 권리가 훨씬 우선되어야 한다. AI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노동자의 일자리가 바로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주시중급인민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다. 직무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한 재교육, 역량 강화, 일터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지 무작정 해고부터 단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례는 관련 제도를 더욱 빠르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AI의 기술력이 아무리 강해져도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주어야 한다. 어떤 기업도 'AI가 왔으니 너는 나가라'는 논리를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신속히 행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노동 보장이든 경고 모니터링이든 모두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AI가 세상을 바꿀 수는 있어도 '주인공'을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언제나 인간이며 오직 인간뿐이다.

/법치일보



5월 17일, 장춘시공안국은 2026 장춘마라톤경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4,100여명 경찰과 7,500명 보안인력을 코스 전 구간에 배치해 '수호'와 '봉사' 임무를 완만히 수행했다.

/장춘시공안국